PVC 가소제 2000리터 누출사고 발생

DINP 24톤 탱크로리에서 ··· 칠곡 경부고속도로 긴급 방제작업 나서

PVC(Polyvinyl Chloride)의 2대 가소제 중 하나인 DINP(Di-Isononyl Phthalate) 2000여리터가 도로에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2일 오후 10시 경 경상북도 칠곡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6.4km 지점에서 서울방향으로 달리던 24톤 탱크로리에서 DINP 2000여리터가 누출됐다.

DINP는 PVC에 사용되는 가소제의 일종으로 휘발성은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칠곡군 관계자들은 흡착포로 도로에 유출된 DINP를 수거하는 등 누출된 DINP가 배수구나 인 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시간여에 걸쳐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으나 교통통제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 탱크로리의 배관계열이 파열되면서 다량의 DINP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운전사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3>